



### ■이토국 역사박물관

G5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토시마의 역사와 문화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시설. 세계 최대의 청동거울인 국보 '내행화문경' (지름 46.5cm) 을 비롯하여 히라바루 유적의 귀중한 출토품 전시, 출토 당시의 고분상태를 재현한 모형이 있는 상설전시실은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쇼와 40년대 (1965-1975년 사이) 의 거실을 복원한 2층 전시실 (기념촬영 가능) 이나 이토시마 평야의 광대한 경치가 한 눈에 보이는 전망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 ■라이잔 센노지 절 대비왕원

F7

725년에 쇼무천황의 칙원을 받은 세이가쇼닌 (清賀上人) 이 창시했으며, 이후 약 1,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깊은 사원입니다. 경내에는 후쿠오카현의 천연기념물인 수령 약 400년의 거대 단풍나무가 우뚝 솟아있으며, 단풍이 물들 무렵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그 아름다움에 경탄합니다. 국가중요문화재로 가마쿠라시대 작품인 '목조천수관음입상 (463.6cm)', 후쿠오카현의 지정문화재인 '목조다문천상' 뿐만 아니라 정원에 밀집한 오백나한의 귀여운 모습도 볼거리입니다. '사무하라'라는 부적의 보관장소로도 유명합니다.



### ■사쿠라이 신사

E2

1632년에 구로다 2대 번주인 구로다 다다유키 공이 창건. 노송나무 껍질을 사용한 지붕이 특징인 산겐야시로 나가레즈쿠리 기법의 본전에는 호화롭고 아름다운 극채색의 조각이 있으며, 배전, 누문 모두 후쿠오카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본전의 뒤편에는 '이와토 신궁', 참배길 왼쪽의 돌계단을 오르면 이세신궁의 내궁과 외궁을 일체화한 일본신사 건축양식 중 하나인 신메이즈쿠리의 '사쿠라이 대신궁' 도 있습니다. 정적에 둘러싸여 신성한 기분이 드는 명소로 많은 이들이 방문합니다.

